

사학도 생산성시대

상 지립경제 실천하는 선두주자들 하 사학 지립경제 이렇게

불심 나누고 수입도 늘리고



공주 영평사는 (주)영평식품 회사를 설립해 지립경제 실현은 물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사진은 영평식품에서 죽염을 만드는 모습.

"10년 후에도 우리절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을까?"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사회의 신도가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보시금 등 사중 수입이 줄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태다. 사찰이 회사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도 아니지만 '자립'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 보아야 한다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생산불교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생산불교에 대한 마인드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일부 사찰과 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립경제 사례는 건전한 사립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공주 영평사 30여 제품 판매, 수익금 지역 환원

구절초축제로 유명한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생산불교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9년 사찰에서 대대로 내려온 제조법을 활용해 '장군죽염'으로 출발, 현재 2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주)영평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영평식품이 생산하는 제품

은 죽염과 장류, 구절초와 헛개나무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 등 30여 품목에 이른다. 영평사의 생산불교 활동은 신도들의 시중으로 사찰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한 주지 환성 스님의 의지로 시작됐다. 불교가 답장을 넘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 능력을 갖춰야 했고, 그 방법이 생산불교였던 것. 영평사는 영평식품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공주청소년자활봉사센터와 논산충남청소년자활봉사센터 지원, 논산훈련소 군법당 등 후원, 재조사 교화, 지역 불우한 가정 후원 등으로 사용한다. 게다가 고용 창출과 관광수익 증가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화 선원사 蓮 이용 각종 상품 개발... 냉면 공장도

1997년 황토집집방을 개원해 화제를 모았던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팔만대장경 판각성지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불사비용과 사찰운영비 등을 수익사업을 통해 충원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연꽃의 매력에 푹 빠진 주지 성원 스님은 3년여의 연구로 연이 피를 정화시켜주

고 지방 분해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원사 전담에서 키운 연을 이용해 연갑국수, 연냉면, 연임자, 연근차, 연잎가루, 연근가루 등의 상품으로 개발해냈다. 지난해 12월 연요리 음식점을 연대 이어 지난 4월에는 제품을 생산해주던 냉면공장을 인수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선원사는 농민, 축산농 등 지역농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관광농업연구회를 조직해 농림개발 사업을 추진, 1만평에 연을 이미 분양했고, 50만평의 연꽃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양평 법화사 천일염 제조 이윤 복지사업 지원

바다와는 거리가 먼 양평에 있는 법화사(주지 환관)의 특산품은 특이하게도 전통 소금이다. 환관 스님은 2003년 전남 해남의 한 염전과 계약, 바다에 깔린 검정비닐을 걷어내고 갯벌로 바다를 다져 소금을 생산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천일염 생산방식을 고집한 것이다.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토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생산량이 일반 소금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년에 만들어지는 소금의 양은 고작 4000kg에 불과할 만큼 법화사의 생산활동은 아직 초보단계다. 많은 이유는 아니지만, 모두 불우이웃들과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사업에 쓰인다.

양주 대원정사 주변 약초 채취 연구 개발 생산

지장기도량인 양주 대원정사(주지 해린)는 신도들이 많이 찾아 생산불교를 고려하게 된 사찰이다. 산에서 약초를 채취해 한약재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나눠주던 주지 해린 스님은 3년 전부터 사찰의 각종 불사와 복지사업을 위해 상품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2년여의 연구가 힘입어 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헛개나무, 오가피나무, 산뽕나무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해냈다. 또

지역농가에서 직접 매입한 작물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방식 그대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대원정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대원산사식품'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대원산사식품은 다이아몬드제품과 건강보조식품, 재래식 전통장 등 10여 품목을 개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강화 무애원 도자기 판매로 포교비용 등 충당

해병대 장병 포교로 잘 알려져 있는 강화 무애원(주지 설봉)은 생산불교의 전형을 보여준다. 포교비용을 포함한 사찰 운영비의 대부분이 도자기를 구워 마련하고 있는 것. 시중돈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1992년 강화도에 터를 닦은 주지 설봉 스님은 무애원내에 도예연구소와 생활도자기 판매장을 설치했다. 이 역시 포교를 위한 설봉 스님의 선택이었다. 설봉 스님은 골결질과 나무를 태워 남은 재로 자체 개발한 자연유약을 발라 만든 도자기를 판매한 비용으로 해병대내 호국기공사 건립, 15년여간 매주 법회비용, 매년 내차와 장병체육대회 운영비 등을 충당했다.

금강경독송회 믿음 주는 장 생산 인기몰이

재가 수행단체인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수행의 일환으로 지립경제를 꾀했다. 1989년부터 직접 재배한 콩과 개로 참기름, 매주, 간장, 된장 등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다가 점차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면서 생산불교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일소문으로 전해진 금강경독송회의 제품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금강경독송회의 장류는 재료 선별에서부터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상품은 곧 금강경독송회의 얼굴'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믿음은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Table with 4 columns: 사찰, 생산 품목, 연락처, and other details. Rows include Gongju Yeongpyeongsa, Gwangha Seonwonssa, Yangpyeong Beopalsa, Yangju Daewonjeongsa, Gwangha Mu'aewon, and Geonjanggyeoksonghui.

부다의 경제학(7)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의미하고, 그 노고를 기리는 날이다. 참으로 의미 있고 뜻 깊은 날이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야 할 축제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근로자의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전투의 날, 투쟁의 날이었다.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일부 노동운동가들은 기존 경제 시스템의 파괴를 주장하며 쟁쟁하고 싸우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똑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극락으로 보인다. 일

가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사장님 소리를 듣거나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설혹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 셀러리맨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지만 하면 사장님 소리를 듣기 위해 변신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용주가 되기도 하고 피고용인이 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어떤 때에는 고용주의 역할을, 어떤 때에는 피고용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마르크스의 눈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참으로 인생은 즐거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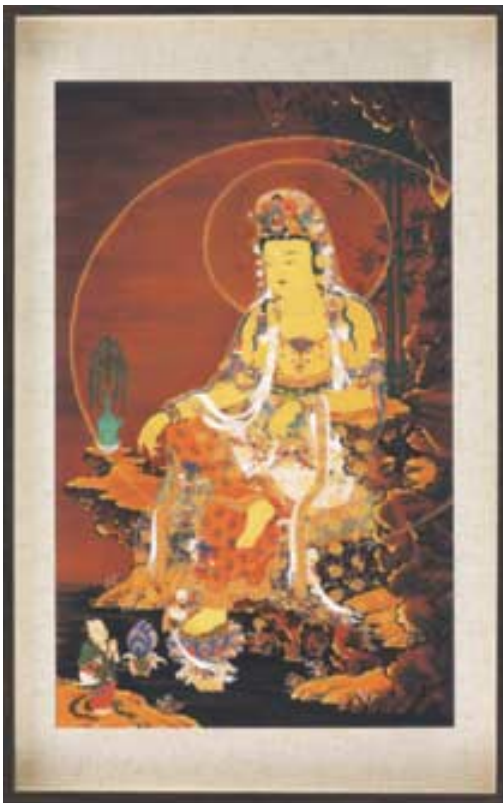
마음 먹기에 따라 변신 얼마든지 가능 자기의지로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 되기도 자신의 도리 다하며 일할 때 '즐거운 인생'

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자본가들이 근로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몹시도 정교하고 복잡한 사회이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세워졌던 사회주의의 국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된 오늘날에도 흑시 우리는 마르크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거 우리 사회에는 정팔 소수의 자본가만이 존재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은 정팔 특권층처럼 보였다. 그들에 비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더군다나 그 기업가들은 정교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한 듯 보였다. 마르크스의 눈은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눈인 듯 했다.

부처님께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도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법하셨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라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라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도록 하라 때때로 휴가를 주도록 하라 피고용인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라 자기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 주인의 물건을 아끼고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출할 때 예절로서 대하라 주인의 취한 점을 말하지 않되 주인은 정의를 말하지 않도록 하라"

250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들리는 부처님의 음성인 진보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달마보다 더 인기!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지혜로운 영험의 불화이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집안 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월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산비라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연인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폐허가만 하던 재물이 상승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폭으로 해결되는 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이다. 불화의 명칭이신 法性 金裝佛 寶像에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탄판 화지에 호도 판화와 베풀린 와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종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풍위가 있는 세대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종사와 자자손은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나는는 임소문이 피지면서 서을 조개사 앞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함정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평영주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신 목욕재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도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협한세상타처울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들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맨드레이크에 학생은 가방속에 넣는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손잡이처럼 속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들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맨드레이크에 학생은 가방속에 넣는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손잡이처럼 속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매홈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서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지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나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 이뤄!

옴마니 반매홈,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도니 부처님께서 서유국 기다린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힘겹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광으로 옴마니반매홈 육자대명왕진언을 살았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복을 앓고 싶었으며 병든자는 말기 어려움정도도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광에 입각해 받구불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원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매홈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임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 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된 한 원 옴마니 반매홈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이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팔길"을 넣었으며,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배"분함을 넣어 평생 밍 왕진언을 살았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명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배 특별 축원 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으로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